



심상적 풍경 너머 열린 사유를 되묻다



조강현 작가

하늘과 수평선, 그 아래 깊숙이 자리한 바다는 감추어진 무의식의 기억처럼 모든 것을 감싸 안고 묵묵한 침묵으로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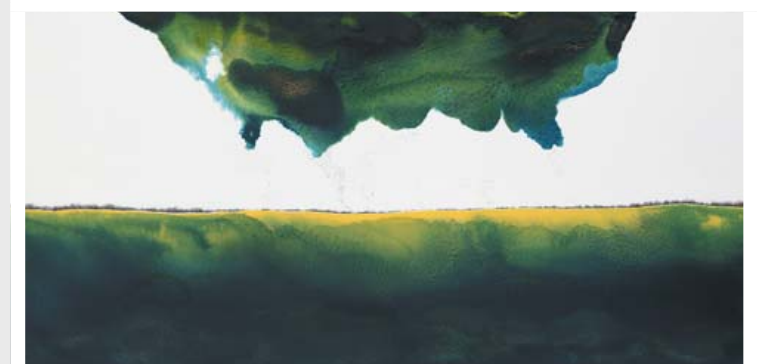
하늘과 지평선, 그 접점에 아스라이 자리한 부드러운 능선, 그 평온해 보이는 선들에 가까이 다가서면 날카로운 선들이 영기어져 있다.

마치 의식 속에 살아 존재하는 수많은 기억, 상념, 아우성의 회로처럼 하나하나가 저마다의 소리를 낸다.

그러한 하나하나의 선들이 모여 형상을 만들고 가며 우리의 수많은 무의식의 기억들은 이어지며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

마치 한 그루의 나무들이 모여 숲의 능선을 만들어 가듯.

- ◆개인전: 16회 (서울, 광주, 도쿄, 리용, 화순 등)
- ◆단체전: 400회 (파리, 도쿄, 북경, 서울, 광주, 양주, 제주도, 대전 등)
- ◆기타 경력: 문화관광부장관 공로상, 엔프라니 에비뉴 실험문화인 선정, 서울시립미술관 SeMa작가 선정,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센터 입주작가
- ◆작품소장: 과천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서울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전주지방병원정읍지원, 한일 APT베라체, (주)영무건설, (주)엔프라니에비뉴, 나눔문화연구소, 2byte클씨미디어, 우제길미술관, 아천미술관, 호남대학교미술관



일상 속의 소중한 순간 기쁨으로 기억



지니킴 작가

싱가포르에 온 지 벌써 10년 차다. 처음 싱가포르에 이사 왔을 때 기대 반 걱정 반이었다. 한국에서 해오던 작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며 엄마로서 작가로서 생활은 쉽지 않았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경험을 좋아하는 나인데, 이곳에서의 생활은 다소 복잡하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가족 모두 적응을 할 때쯤 다시 붓을 잡았다. 그림은 나에게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고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실타래처럼 얽혀 해소되지 않았던 나의 싱가포르 생활이 작품 안에 담겨있다. 외롭기도, 설레기도 했던 하루 하루의 생활을 마치 일기처럼 그려냈다.

무작정 그리고 또 그리다 보니 싱가포르의 다양함과 개성을 조화롭게 표현하고 있었다. 한국인 (여기선 외국인) 정서로 바라보는 이 나라는 다양성이 정체성이라는 걸 또 내가 그리면서 알아내고 있었다.

물감을 짙 특색 짙내 마티에르를 표현하고, 거기서 나오는 물감의 우연한 형태에서 어떤 모습들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그려 넣었다. 마치 내가 이곳에 불현듯 어울려 살듯이 말이다.

나의 작품 속에는 보편적이지만 많은 이야기와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관람객들이 '말캉말캉 젤리 같은 게 뭘까'라는 호기심으로 다가와 일상의 이야기들을 관찰하며 전체를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마치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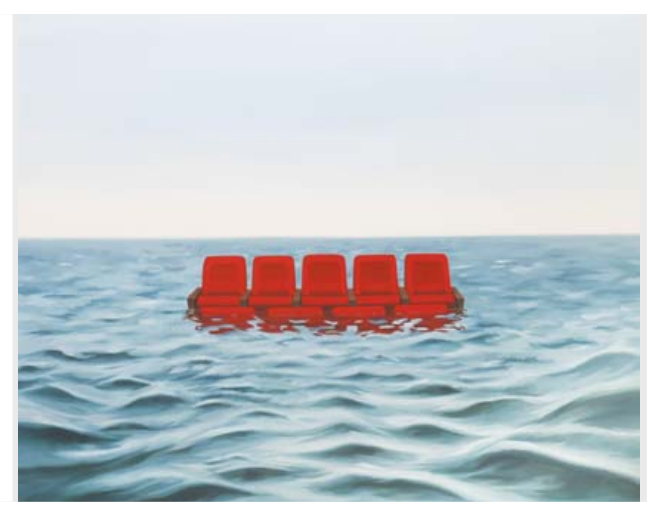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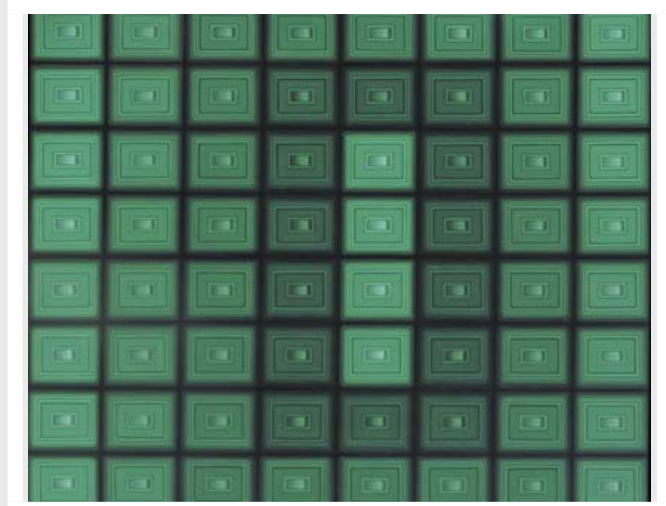
- ◆개인전: 6회 (서울, 남양주, 화순, 싱가포르 등)
- ◆단체전: 다수 (서울, 광주, 목포 등)
- ◆아트페어: 다수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싱가포르 등)



현대인의 감정스위치를 자극하는...



웨이더원 작가



Can you turn off your emotions?

나는 창작할 때는 감정이 고조됐지만, 작품을 완성하고 나면 우울해지곤 했다. 이와 같은 감정상의 기복으로 피로감을 많이 느꼈다.

어느 날 낱을 새며 그림을 그리고 나서 작업실의 불을 끄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스위치를 보며 '감정의 스위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작품을 제작할 때 나는 일상적인 사물을 통해 철학적 사고를 표현해내는 데 노력한다.

나의 작품 대부분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저마다의 의미와 상징을 내포한다.

작품 속 일상적인 사물들은 단순한 물리적 존재가 아니라 더 큰 철학적 의미를 되짚는 중요한 과정이다.

현재 마주하고 있는 내 모든 사물, 순간, 공간 등을 데페이즈망 기법처럼 재구성한다. 관람객들이 표면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과 인간의 존재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도록 유도한다.

작품과의 대화를 통해 평범한 사물을 철학적으로 질문하고 고민해보며 관객들의 시선이 오래 머물길 바란다.

- ◆개인전: 1회
- ◆단체전: 20회 (도쿄, 서울, 광주, 화순 등)

